

2일 Market Index			
코스피	2427.85	코스닥	787.19
	(+15.00)		(-4.41)
금리	3.878	환율	1315.60
	(+0.081)		(-7.00)



m-커버스토리

과점깨기 이어 담합여부 조사 강도 높아진 압박에 ‘긴장감’

‘은행 제도개선’ 칼 빼든 당국

매주 TF 회의 열고 실태 점검
6개 과제 선정하고 개선 속도
공정위, 금리담합 여부 등 조사
일각선 “현장 너무 모르는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시스

돈잔치 논란으로 못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열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시중은행 과점 깨기에 이어 담합 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제 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에 은행업 과점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방안 ▲보수 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강화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가 열린 지 약 일주일만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돼야 할 내용이 많고, 설정된 논의 기한 역시 6월 말로 제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리 문제를 공정위의 담합 조사로 푸는 것은 금융업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름)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어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산금리 역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해 대출금리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담합이 쉽지 않다. 은행마다 자금조달 상황이나 목표 대출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담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며 “예금·적금·대출 등 금리 비교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고객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과당경쟁의 결과 금리 수준이 평준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담합으로 몰아가면 잘 못된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스페이스X 6번째 유인 캡슐 발사 성공

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 39A 패드에서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우주선 캡슐에는 안드레이 페다예프(러시아), 워렌 호버그, 스티븐 보웬(이상 미국), 술탄 알-네야디(UAE) 등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세단·SUV 이어 ‘픽업트럭’ 전기차 라인업 확장 본격화

테슬라, 사이버트럭 연내출시 계획
기아·쌍용차도 전기픽업트럭 준비



테슬라 사이버트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픽업트럭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픽업트럭 출시를 알리면서 업체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픽업트럭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그먼트이자 국내 시장에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텍사스 테슬라 기기팩토리에서 가진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전기차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최초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당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2023년 초로 미뤄진 이후 여러 차례

일정이 연기됐다. 사이버트럭은 2020년 출시된 전기 자동차 ‘모델Y’ 이후로 테슬라가 3년 만에 출시하는 신모델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한 만큼 사이버트럭 출시로 픽업트럭 시장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어온 포드는 인기 모델인 F-150의 전동화 모델 F-150 라이트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30% 주담대 허용

금융위, 대출규제 대거 완화

투기지역 주담대 한도 사라지고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도 해제

앞으로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금융위 정책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日은 협력 파트너’” 윤대통령 발언 지지
▲국힘 “민주당 위기로 몰아넣는 개딸 버려라”
/사진 뉴시스

▲이기인 “‘불법 레이싱 모임 운영 의혹’ 장예찬 사퇴하라”
▲민변 “尹 3·1절 기념사, 역사 남을 치욕적 망언”



▲김·경·국세청·금감원 공무원 18명, 로펌 재취업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진 뉴시스

대기업 연간 전기료 100억 ↑… PPA요금제 철회·개선 촉구

〈직접구매계약〉

대한상의,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
기업 대다수 전기료 부담 증가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결림들
“기업들, 추진동력 상실된 상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급부상한 ‘직접구매계약(PPA)’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50% 이상 비싼 PPA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다. PPA 요금제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연간 60억~100억원, 중견기업은 10억여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는 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만큼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변경·중단 등의 혼란이 빚어지며 PPA제도가

〈PPA전용 전기요금과 기존 전기요금 증감율 비교〉

요금제		PPA전용 전기요금(A)	산업용 전기요금(B)	증감(A-B)
기본요금(원/kW)		9,980	6,630	+3,350 (▲50.5%)
시간대별 사용요금 (원/kW)	경부하	95.1	94.9	+0.2(▲0.2%)
	중간부하	127.1	140.2	-13.1(▼9.3%)
	최대부하	179.4	196.4	-17.0(▼8.7%)

※일반용·산업용(을) 요금·고압B(선택) 겨울철 요금 기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PA는 기업이 한전 운영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 된지는 아직 2년이 안됐다.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상의는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부담이 크

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은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데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해말 전격적으로 신설돼 업계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 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PPA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결림들로 작

용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제 PPA요금제는 대다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돼 PPA요금제가 PPA 확산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체 A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급망의 요구가 있어 비용부

담에도 경영진을 설득해 PPA계약을 추진했는데 PPA요금제로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예기치 않은 요금인상도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사용, PPA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더욱 아쉽다”고 토로했다.

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요금제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산업생산 0.5% 소폭 반등 ‘불확실성 여전’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지수 109.7, 증가폭 7개월만에 최대
광공업 생산 2.9% ↑ 반도체 -5.7%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이 0.5%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지속에 기업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11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5.7%)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9.6%) 등이 늘어 전체 광공업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 출하는 0.7%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반도체(-25.8%)와 기계장비(-6.5%), 전자부품(-6.4%)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1% 늘었지만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보험(-5.0%) 등에서 줄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종합 소매업 등 도소매(3.7%) 등에서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3.1%) 분야도 늘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1%), 12월(-0.2%)에 이어 올해 1월(-2.1%)까지 3개월째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죄다 줄어든 영향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수입차 일부 브랜드 출고 중지, 전기차 출고 지연 등으로 수입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줄고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줄어든 것도 소매판매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반도체 반등없이 수출 조기회복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수출투자 대책회의
“콘텐츠, 서비스·제조업 성장 견인
2027년까지 K-콘텐츠 집중육성”

최근 반도체 부진 탓에 당분간 수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국 등 주요국 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없이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면서도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중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개선됐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은 0.5% 소폭 반등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도 출시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 항공 운항이 복원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재개되고 있어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GMC 시에라 등도 픽업트럭 경쟁 나서

》1면 ‘세단·SUV 이어 픽업트럭’서 계속

F-150 라이트닝의 공식 주행거리는 230~320마일(약 370~515km)이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은 표준형 배터리를 탑재한 프로, 배터리 확장형 프로, 래리엇(Lariat), 플래티넘 등으로 판매한다. 표준형 프로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최장 230마일(약 370km), 배터리 확장형 프로와 래리엇은 320마일(약

515km)이다. 최상위 플래티넘은 300마일(약 482km)가량이다. F-150 라이트닝은 가정용 충전 시스템과 150kW DC 급속 충전 방식 등을 지원한다.

GM(제네럴 모터스) 산하 브랜드인 GMC와 쉐보레도 각각 시에라 전기픽업과 실버라도 EV 등으로 시장 경쟁에 나선다.

국내 완성차업체에서는 기아와 쌍용차가 전기 픽업트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쌍용차는 내년 하반기 전기차 픽업트럭을 준비 중이다. 렉스턴 스포츠의 후속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는 EV6를 생산하고 있는 오토랜드 화성에서 내년부터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수 및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아가 새로운 픽업트럭을 선보이는 건 1981년 브리사 픽업 단종 이후 43년 만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이복현 “순자본비율 정비… M&A 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관행개선 등 투자자 신뢰회복 당부
SM 주가조종 의혹 해소·대응 시사
“소비자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예탁금 이용료율과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독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두고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서 촉발되었던 증권사 유동성 이슈도 아직까지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증권업계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증권사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취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와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약 부문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에 큰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업계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굳건히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문제는 그간 오랜 과제였던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증권사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 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업공개(IPO) 회사의 발굴, 토큰증권 발행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 달라”며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해 자본시장 내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는 우리 증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글로벌화에도 더더욱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가 조종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서 절차적 준수 여부나 시장 혼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해 균형감있게 보려고 했다”며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단이냐 방법이 동원되면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과 규칙, 제도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에스엠 발행주식 총량의 25%를 주당 12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12만원에서 오르내리던 에스엠 주가는 지난달 16일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하이브는 “IBK 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요청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지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귀농 5년차 연소득 3206만원… 10가구 중 7가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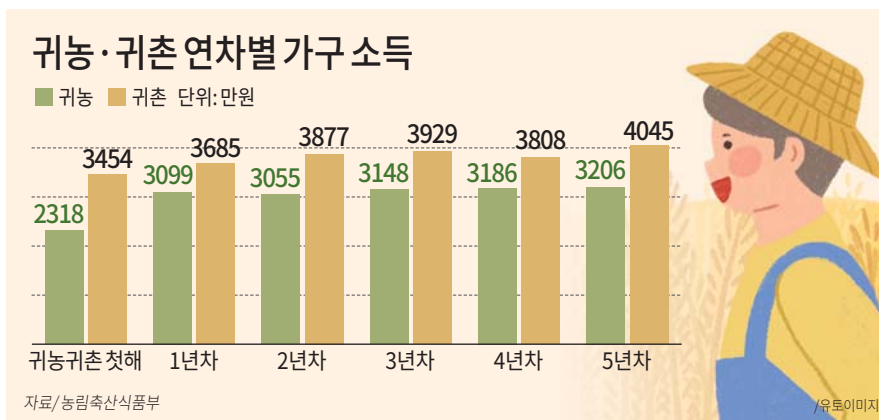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8년 비해 준비기간 줄어들어
유턴형, 무연고 경향 동반 증가
농식품부 “안정적 정착 중점 지원”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구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유턴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첫 해 연소득은 2268만원, 5년 후엔 3206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귀농·귀촌한 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2월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구가 있는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유턴형(U형) 귀농귀촌 경향은 지속됐다. 특



히, 유턴형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 53%에서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반면, 귀촌가구의 경우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형이 2018년 29.4%에서 2022년 34.6%로 증가 추세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

업승계’(20.0%) 순으로 조사됐고, 귀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2.6%), ‘자연환경’(14.1%), ‘정서적 여유’(13.2%)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귀농의 이유로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3.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 귀농 이유가 ‘자연

환경이 좋아서’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귀농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귀농귀촌 5년차 연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은 3206만원(첫해 2268만원), 귀촌은 4045만원(첫해 3521만원)으로, 각각 41.4%, 14.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의 약 절반(45.4%)은 소득 증가, 재능 및 경력 활용 등을 위해 농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가구의 6.1%는 귀촌 후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으로, 각각 귀농귀촌 이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30.9%, 16.3% 감소했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

개월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각각 24.5개월, 15.7개월로 단축됐다.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귀농가구는 67.8%, 귀촌가구는 49.8%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였다. 주요 갈등 요인으로는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문제’(35.1%), 귀촌은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3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귀농 67.2%, 귀촌 67.4%)는 귀농귀촌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귀촌가구 모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귀농 39.9%, 귀촌 39.8%), 자금지원이라고 응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귀농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LTV·DSR 범위 내 가능

》1면 ‘다주택자, 규제지역…’서 계속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 무는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

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한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한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대출시점의 DSR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단 이날부터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

“금융권 카르텔 깨야” vs “대놓고 관치”... 혼란의 은행권

은행 이자장사 논란

尹,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주문
이자장사 등 금융위 대책 마련 지시
4대 금융지주 작년 총 순이익 16조

올해 현재까지 최대 이슈 TOP3에 은행권 이자장사가 들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금융당국에게 발 빠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대놓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과 금융권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메스 든 정부 은행 공공재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고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에는 ‘셀프연임’ 등을 막기 위해 회장 선임 절차 등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급, 이자장사 등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 이후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총순이익은 15조8506억원(지배주 기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이자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39조6735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34조7063억 원)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 원) 대비 3629억원(35.6%) 늘어났다.

정부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들어하는 와중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이 저금리시기 당시 대출 급증 이후 고금리로 급히 전환되면서 손쉽게 돈을 벌었고,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 늘리기에만 치중한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과점 체제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매주 회의를 진행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의 일환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과점체제 등 금융당국, 대대적 손질 계획 밝혀 이사회에 대한 구조개혁도 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상승기 금융 취약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리부담을 크게 겪는 와중에 수십조 단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안에 대해 과연 제일 바람직한가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뿐 아니라 은행업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자장사 은행업의 본질...노골적 관치 눈살

윤 대통령의 은행의 공공성 역할에 대해 잘못된 접근으로 은행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은행장사의 본질인 이자장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최근 이자장사 논란과 관련해 거둬드는 정부의 압박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잇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섰음에도 ‘돈잔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에 눈이 멀어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고 우대금리로만 이자를 조정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에 와서 비판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예금 금리 인상 자체를 내리면서 금리가 4%대까지 주저앉았다. 이에 예대율이 더 크게 벌어지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금융의 오락가락한 지시로 인해 시장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은행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한 건 금융 당국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용 규제를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고랜드 발 자금난이 발생하면서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금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반 회사채 투자자가 사라지면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

이다. 이자장사의 경우 금액만 커졌을 뿐 순이자마진은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 수익성을 말한다.

10조원이었던 대출잔액이 100조원으로 불어나면 10배가 커진 것일 뿐, 순이자마진은 같은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조달금리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계속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것은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자마진(NIM)은 KB금융 1.99%, 신한금융 1.98%, 하나금융 1.96%, 우리금융 1.92% 등이지만 미국 금융그룹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제이피모간체는 2.1%, 씨티그룹은 2.3%, 웰스파고는 2.7%를 기록했다.

거둬드는 정부 압박에 금융권 당황 금융 오락가락한 지시에 시장 혼선 금액만 커졌을 뿐 순이자마진 동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의 세계 금융 랭킹이 70위권으로 우간다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 관치가 심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으로 정부가 왜 은행을 소유한 것처럼 발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정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회사에 너무 많은 책임을 강조하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등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내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그린으로 성장하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현안 쌓였는데 국회는 겨울잠... 與野, 허울뿐인 ‘민생’

노란봉투법 등 산적... 임시회 뒷전
국민의힘 전대 후보 간 신경전 과열
민주당, 李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여야가 올해 매달마다 임시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을 맞으며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공휴일인 삼일절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3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K-칩스법, 의료법 및 간호법 개정안 처리,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 방송통신위원 선출 절차 등이 꼽힌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내부 잡음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줄기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발 찍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각각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기’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표 후보 소유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의 연예인 성적대 상화 웹소설 작성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22대 총선 공천이 ‘정실공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 중립 규정이 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2

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천과동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또 ‘폭망’할 것이다.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그래서 정권도 다시 교체돼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정말로 두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하루 만에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책임 요구와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이 독식하는 ‘검찰공화국’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非)이재명

계의 반발을 확인한 민주당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을 추정한 ‘살생부’를 만들어 항의 전화, 문자폭탄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내 청원게시판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당과 영구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1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

발 특혜 의혹’을 터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전 총리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이재명계 반란표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2일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루도 뭉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며 “방탄을 희석시키고,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후 3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또 무리하게 국회를 과행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막바지 與 전대...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여전

제3차 전대 수도권 합동연설회
金 “21대총선 참패 원인, 황교안”
安, 김기현 울산 투기의혹 비판
黃 “安, 정당 설립·파괴 전문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현·안철수·전하람·황교안 후보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까지 정책 대결 대신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었다.

김기현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21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황교안 후보를 지목하며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국 선거 지휘 실패,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인사’로 규정된 뒤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내 분열을 일

으켜서 당을 망치는 분이 앞장서면 민생을 절대 해결 못 한다. (내년 총선에서도) 당을 위해 헌신한 분을 최우선으로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해명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거티브 공세 정면 돌파로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안철수 후보도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 모두 갖춘 사람은 없다”며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투기가 국민의 3대 역린이며, 총선에서 터지면 패배한다”며 김 후보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견제도 이어갔다.

황교안 후보도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그것이 진정한 당, 나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며 김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 안 후보에 대해 황 후보는 ‘정당 설립·파괴 전문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전 후보에게는 색깔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전하람 후보는 “계파정치, 우왕좌왕, 동원 인원 앞에서 당 대표 혼자 품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다”며 경쟁 후보들의 행보를 비판한 뒤 “다시는 인원 동원 없이, 수도권 젊은 세대가 환호하고, 당원 하고 싶다고, 국민의힘에서 정치해보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3·8 전당대회는 오는 3일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까지 마친 뒤 4~5일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 모바일 투표에 미참여 책임당원은 6~7일 ARS 투표를 한다. 누적 투표 결과는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전당대회 당일 당 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가 없으면 1·2위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로 12일 최종 당선인을 가리게 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 “유공자 예우”

尹정부 첫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법 공포안 공개 서명식을 주관하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

도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뵈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 50여명이 초청돼 서명식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씨와 아들 강병호씨,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귀식 경무관의 아들 최민석씨와 손녀 최현정양을 비롯해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현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 안기영씨 등 25명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기념사 비판에 “미래 보고 가야”

(3·1절)

협력 파트너 발언에 야당 등 비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한 것에 대해 야당을 비롯해 일부 역사학자·시민단체들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 “그래도 약국 국민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

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모든 것이 함께 얹혀있다”며 “어제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연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세력이고, 또 한쪽은 어떻게든 반일감정과 혐한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고 답했다.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과연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대겠냐”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실적 갈린 중소 손보사… ‘車 보험’ 점유율 확보 등 과제

한화손보·흥국화재 ‘깜짝 실적’
보험금 누수 막고, 車손해율 ↓

롯데손보, 1년 만에 적자 전환
새 회계기준 대비 사업비 늘어
올해 수익성·건전성 개선 집중



롯데손해보험 | let: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형 손보사는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개선된 실적을 거둔 곳이 있는 반면 적자를 기록한 곳도 있어서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손보사 중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롯데손해보험은 1년 만에 적자 전환을 나타냈다. 손보업계 ‘빅5’(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

화재)가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과 성장률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화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 동기(1559억원) 대비 93.7% 증가했다.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생명의 당기순이익(8165억원)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한화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4.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효자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흥국화재는 전년(620억원)대비 136.3% 상승하며 세 자릿수 성장세를 이룩했다. 당기순이익은 1465억으로 손

보업계 수익 상승 기류에 제대로 올라탔다는 평가다. 흥국화재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양 사가 수익성 개선을 이룬 배경에는 지난해 손보업계가 백내장, 하지정맥류 등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를 적발해 보험금 누수를 막은 것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진 점 등이 있다. 차 보험 손해율 인하는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이 차량 이동을 줄인 덕분이다.

수익성 중심 보장성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장기위험손해율도 한 나아졌다. 한화손보와 흥국생명의

장기위험손해율은 각각 6.8%포인트(p), 8.2%p 개선됐다.

반면 롯데손보는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의 당기순손실은 628억원으로 지난 동기(1199억원)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 전환은 눈에 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번 적자는 사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여파다. 장기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해 적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익 602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J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들어선 이후 장기보장성 보험 신규월납 매출액을 24.7% 끌어 올렸다.

올해 롯데손보는 그간 계획했던 장기 보장성보험 영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

SM)의 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가 이어졌다”며, “수익성과 건전성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대형 손보사에 집중된 자동차 보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한 중소손보사의 숙제다. 지난 3분기 기준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상위 4곳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비중(원수보험료 기준)은 84.5%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의 점유율은 9.4%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 긴급출동 등 단순서비스와 마케팅 확대가 함께 이뤄지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한은 “유가·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둔화 더딜 것”

1월 소비자물가 5%대로 하락
물가 압력 리스크 요인 산적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도 영향

소비자물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라 둔화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BOK 이슈노트 2023-7)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6.4%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1월 5%대로 낮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국제유가·공공요금에 따른 파급영향 ▲기대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등이 물가 둔화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수요가 확대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한국은행 전경.

는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감산하기로 했다. 수요가 늘고 공급차질이 불확실해지면 국제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에 따라 물가도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의 버스·지하철, 경기·인천의 택시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송상윤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인상폭과 시기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며 재화 및 서비스 가격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송 팀장은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오르면 근원물가가 올라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에서 더 크게 오른 점도 이차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이나 에너지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것들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근원물가는 비근원물가(농산물, 에

너지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서비스물가를 주로 높이는데, 특히 비근원물가가 높으면 개인서비스물가로 전이가 빠르다. 농산물, 에너지 등의 인상분이 개인서비스물가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해 물가오름세 둔화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가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대인플레이션은 4%로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송 팀장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미국과 달리 노동시장 이외의 요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별 프로모션 진행

카카오뱅크가 1조 5000억원 규모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특판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해당 상품 판매 기간은 3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특판 대출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 금리인하가 적용되면 신규대출 금리는 최저 연 3.42%로, 금융권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최저 연 3.43%, 기존 대출을 연장할 시에는 최저 금리가 연 3.39%로 적용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금리가 최저 연 3.42%, 연장 시 대출금리도 최저 연 3.42%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시세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특판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대출 탭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메뉴에서 ‘나의 한도 확인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혜택 확 늘린 ‘금쪽같은 자녀보험’ ‘암, 뇌·심’ 3대 성인질병 집중 보장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이 주력상품인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선보인다.

◆ 가입연령, 보장, 납입면제 등 세 가지 혜택 확대

KB손해보험은 기존 자녀보험 보다 혜택을 강화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만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최대 만 35세까지 확대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며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성장’ 관련 보장을 추가했다. ‘성조숙증 진단·치료’ 및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 보장을 담아 자녀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재구성했다.

추가로 수두, 수족구 등 9대 전염병에 대한 진단비를 탑재했다. 내향성 손발톱이나 십자인대 수술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위험에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중대사고 발생 시 납입면제를 총 11개로 확대했다. 손보업계 최초로 ‘외상성 특정 뇌출혈’, ‘외상성 특정 장기손상’에 대한 납입면제도 추가했



우리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가입하는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출시 이미지. /KB손해보험

다. 여기에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만성 당뇨 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를 포함한다.

한화생명도 암, 뇌, 심혈관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선보인다.

◆ 국내 주요 사망원인 집중 보장

한화생명은 3대 성인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한화생명 G1건강중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보장형’과 ‘뇌·심 보장형’으로 구성했다. 해당 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1종 암 보장형은 최대 2억원, 뇌·심 보장형은 1억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먼저, 주계약 뇌·심 보장형에서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담보를 확대했다. 특정3대암보장 특약에서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시 일반암 연계조건 없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일반가입형 외에도 간편가입형을 추가했다.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가입 연령은 기존보다 10세 가량 높였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유병자와 고령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했다.

/김정산 기자

고금리에 내수 절벽... 車업계, 다양한 할부·할인 마케팅

현대차, M카드 2~3개월 무이자
기아차, 배출가스 4등급 '보조금'
쉐보레 콜로라도 1.9% 초저리 할부
르노 주요차종 3.3% 저금리 할부
쌍용,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고금리에 계약을 취소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할인 혜택과 금리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신차 할부 금리가 연 10%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완성차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특히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쉐' 3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할인 프로모션에 주력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3월 한 달간 현대카드 M 계열 카드로 M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2~3개월까지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다. 20·30·40개월 할부를 진행할 경우 6.2%, 50·60개월은 6.4%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자 수수료는 36개월 기간 동안 상환이자 없이 기간 내 미상환



제네시스 G80

시 별도로 추가 이자없이 남은 원금만 납부하면된다. 중도 상환시에도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아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배출가스 4등급 차량 신규 포함)에 따라 친환경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조금의 상한액(폐차 시 기본지원금 및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합산 기준) 또한 기준가액이 더 높은 4등급 차량의 상태를 감안해 5등급 대비 500만원 더 많은 최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기아는 본인이 소유 중

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을 인증하는 고객에게 커피 교환권과 신차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같은기간 콜로라도 대상 1.9% 초저리 할부를 제공하고, 트래버스는 400만원을 할인한다. 쉐보레 콜로라도 1.9% 초저리 할부 상품은 선수율 없이 최대 36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일시불로 콜로라도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50만원을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자가 콤보 프로그램(할인과 할부를 결합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2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활용



한국지엠 쉐보레 2022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하면 50만원 할인한다.

트래버스는 콤보 프로그램 이용시 400만원을 할인한다. 일시불 구매자엔 취득세 300만원을 준다. 트래버스 할부는 3.9% 이자에 최대 60개월 상품(선수율 30%)이 준비됐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100만원 할인한다. 타호는 3.9% 이자, 최대 60개월 할부(선수율 30%)를 마련했다. 일시불 구매자는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르노코리아는 QM6·SM6·XM3 등 주요 차종에 대해 최대 36개월 3.3%의 저금리 할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차종별 조건에 따라 최대 170만원의 특

별 할인도 제공한다.

2023년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된 XM3E-Tech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3월에 QM6·SM6 등 르노코리아의 주요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6개월 3.3% 저금리 할부 상품(할부원금 1200만원 이하)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 3.3% 저금리 할부 상품(할부원금 1500만원 이하)도 선택 가능하며 그 밖에 할부원금 제한 없이 36개월 5.9%, 48개월과 60개월 6.9% 할부 상품도 이용 가능하다.

쌍용차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봄 앤 새차 페스티벌'을 시행한다. 노후차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840만원 상당의 혜택(일부모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정부의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에 발맞춰 '노후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객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토레스 및 코란도, 티볼리 등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최대 800만원)에 더해 차종에 따라 10~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렉스턴 및 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정부의 폐차 지원금(최대 4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순항... 英 '승인' 기아, 전동화 대형 SUV EV9 출시 초읽기

영국 포함 11개국 심사 종료
美·유럽연합·日 승인만 남아

대한항공이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최종 관문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일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영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

으로 수용하고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심사기한을 1월26일에서 3월26일로 연장했으나 예정보다 빠르게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영국 경쟁당국의 결정은 남은 미국, EU, 일본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2단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사전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절

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호주와 중국 등 경쟁당국은 이번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티저 이미지·영상 선보여
첨단기술의 미래 분위기 물씬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동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아는 '더 기아 EV9'(이하 EV9)의 공개에 앞서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2일 선보였다. EV9은 기아가 2021년 출시한 EV6에 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모델로, 전동화와 지속가능한 브랜드로의 변화를 이끌 플래그십 SUV다.

EV9의 차명은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기차를 의미하는 'EV'와 전용 전기차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의 위치와 역할을 상징하는 숫자 '9'을 더해 정해졌다.

이날 기아가 공개한 이미지와 영상은 차량의 실루엣과 함께 전·후면부에 적



기아 더 기아 EV9.

용한 다양한 조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실루엣을 통해 드러난 EV9은 긴 휠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전폭과 전고 등 차체 비율이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어 전동화 SUV로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전달할 것을 예고한다.

전면부는 내연기관의 그릴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깔끔한 면 위로 여러 개의 조명이 빛을 밝히며 헤드램프와 조화를 이뤄 첨단 기술이 고도화된 가까운 미래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10년 만에 기술직 채용 나선다

올해 400명, 내년 300명 채용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진행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술직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2일 기술직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규정하고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은 무관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내년까지 생산직 7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4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3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현대차 양재사옥.

서류 접수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3월 말이다.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되며 1차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각 실시된다.

각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

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지난 2021년 기준 9600만원이다. 만 60세 정년 보장과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10년만에 실시하는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부터 대졸자 채용도 진행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홀수월 1일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두번째 상시 채용으로 모집 부문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제조·생산 ▲전략지원 등이다. 오는 14일까지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접수를 받는다. /양성운 기자

망 사용료 한발 물러선 EU... 챗GPT·6G 기술 '관심집중'

MWC 2023

브르통 EU 집행위원

“통신망 새 자금조달모델 찾아야
통신사·빅테크, 이분법적 문제 아냐”

H-NTT도코모, 핀란드-노키아
6G관련 2개 핵심기술 개발 발표
MS, 챗GPT적용 포털 ‘빙’ 첫 선

화웨이 전시관, 삼성의 5배 규모 등
중 기업, 스마트폰 알리기에 적극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 기조연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MWC 2023’의 최대 화두는 망 사용료와 6G 및 챗GPT, 중국 기업의 총공세였다. 최대 화두로 예상된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유럽연합(EU)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면서 한단계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최고급 폰을 선보이면서 크게 활약했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서다.

◆가장 빛난 6G 및 챗GPT 기술

이번 전시회에서 상용화를 5년 앞둔

6G와 챗GPT 기술은 큰 화제가 됐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동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이라는 점에서 6G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와 핀란드 노키아는 6G 관련 핵심 기술 두 가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NTT도코모는 MWC서 6G 시대의 인간 증강 플랫폼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촉각센서를 통해 전해진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6G 시대의 서비

스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촉각 정보까지 공유가 가능하다.

노키아는 6G 센싱존을 전시했는데,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센싱존에서 위치 정보 없이 움직이는 사물의 위치를 전파신호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AI 기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는 모습도 시연했다.

오픈AI에 12조원 투자를 결정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자사 검색 포털



중국 샤오미가 MWC2023에서 샤오미13 시리즈를 공개했다. 샤오미13 프로 후면. /뉴시스

‘빙’에 챗GPT를 적용한 검색형 AI 챗봇을 발표했으며, MWC에서 시연공간을 마련했다. 또 AI 대화 기술과 음성·생체정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뉘앙스’ 솔루션도 출품했다.

퀄컴은 대규모 AI 인프라 없이도 스마트폰에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 홍보 경쟁 뜨거워

중국 기업들이 이번 MWC에서 스마

트폰을 알리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되며 이를 대체할 시장으로 유럽을 꼽고 있다.

화웨이는 9000㎡ 규모의 첫번째 홀을 통째로 빌렸다. 이는 삼성전자 전시관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50’ 시리즈와 화웨이 워치 버즈, 워치 GT 사이버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또 자회사인 아너는 폴더블폰 ‘매직V’와 플래그십 스마트폰 ‘매직5’를 공개했다. 매직Vs도 ‘갤럭시Z폴드4’와 유사한 디자인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조금 키운 게 특징이다. 오포는 ‘갤럭시Z폴드4’보다 더 큰 커버 스크린을 가진 ‘파인드N2 플립’을 공개했다.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업계 3위인 샤오미는 MWC 개막 전날 연례 행사를 개최하고 ‘샤오미13’ 시리즈를 공개했다. 샤오미 13 프로 가격은 180만원이며, 전작인 샤오미12의 2배에 달한다. 샤오미는 이 제품의 카메라 기능이 세계 최고라고 자신하고 있는 데, 삼성 ‘갤럭시S23 울트라’의 경쟁 모델로 꼽히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여전히 세련... 무결점 ‘프리미엄’의 자존심

(A8L)

(Q4 e트론)

김재웅의 봄봄봄

아우디 ‘A8 L’, ‘Q4 e트론’

A8 L A8 부분 변경에도 ‘세련미’
내부에 ‘버추얼 콕핏 플러스’ 장착

Q4 e트론 토크·출력 충분히 만족
동급 전기차 보다 모든게 ‘평균 이상’



아우디 A8 L(왼쪽)과 Q4-e트론.

‘독3사’라는 말은 아우디를 위한 단어다. 아우디를 자타공인 명차 브랜드였던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실제로 아우디 활약상은 대단했다. 스키점프대를 올라가는 광고 영상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고, 요즘에서야 유행하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도 10년 전에 이미 구현해냈다.

플래그십인 A8L은 아우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델이다. 2014년 출시한 A8을 부분 변경했는데, 요모조모 따져봐도 요즘 새로 나오는 신차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다.

당장 외관만 봐도 그렇다. 기존 A8과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세련됨이 묻어나온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이제서야 유행을 타는 상황, A8은 이미 10년 전 적용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테일 라이트에는 OLED까지 추가했다. 앞뒤로 반짝이는 디자인이 완성됐다.

실내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트랜스에 맞춰 ‘버추얼 콕핏 플러스’를 장착, 커다란 화면뿐 아니라 아우디 커넥트를 통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원격으로 정비 상태 확인 등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가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스크린인데, 터치 인식

이 스마트폰 대비 까다롭긴 해도 누르는 느낌도 있고 속도도 빨랐다. 내장 내비게이션에 불만이 많긴 하지만 많이 개선됐다.

롱 휠 베이스답게 2열 공간은 압도적인 럭셔리를 자랑한다. 헤드레스트에 달린 태블릿은 웹 검색이나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다. 가운데 작은 스크린으로 켜 블라인드도 이상없이 잘 퍼졌다. 접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사지 기능도 꽤나 본격적인데, 허리와 어깨, 등은 물론 발마사지까지 가능하다. 강도가 세진 않아도 기분 좋게 이동할 정도는 된다. 독서등이나 조명 조절 등 퍼스트 클래스 같은 느낌도 준다. 뱅앤올룹슨 사운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주행 성능은 내연기관 끝판왕 급이다. 3리터 가솔린 V6 터보차저 엔진으로, 최대토크가 50.99kg·m에 최고 출력이 340마력에 달한다. 물론 고성능 브랜드 S라인 배지도 달린다. 그러면서도 복합 연비는 8.3km/L, 공차중량이 2.1톤인데도 부드럽게 잘 달려준다. 럭셔리 모델이다보니 V6에서 나오는 배기음 같은 건 없지만, 성능은 S 라인업에 비견할만 해서 색다른 기분이다.

Q4 e트론은 올해를 책임질 차다. 아우디에서는 엔트리급이긴 해도 폭스바

겐그룹 MEB 플랫폼으로 처음 만든 전기차, 6000만원 안팎의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볼륨모델을 꿈꾸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우디가 전기차에도 지난 헤리티지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한다. 전기차상향평준화 시대, 아우디가 앞으로도 눈 덮인 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으로 답하고 싶다. 전기차 다 보니 토크나 출력이나 충분히 만족스럽다. 주행거리도 인증상으로는 357km인데, 막상 300km 정도를 달리고 난 후에도 잔여 전력이 30%를 넘었다.

실내 편의 사양도 프리미엄 브랜드 자존심을 지켰다. 작은 크기에 널따란 2열 공간도 신기하지만, 스포츠 스티어링휠부터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전 아우디에서 봤던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운전석쪽으로 들어진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우디의 작은 배려도 느껴진다.

주행감도 익숙하다. 의도적으로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우디 설명이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소형 모듈러 주택 ‘스마트 코티지’

복층 원룸, 화장실·파우더룸 갖춰

LG전자가 미래형 스마트홈 콘셉트인 ‘LG스마트 코티지’를 2일 공개했다.

스마트코티지는 세컨드 하우스 형태 소형 모듈러 주택이다.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과 프리미엄 가전을 적용한 콘셉트로, 공간과 가전 서비스를 융합해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조물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프리 패브’ 방식이다.

이번에 공개한 시제품은 31.4㎡ 크기로 복층 원룸 구조로 제작했다. 거실과 주방을 한 공간에 배치했으면서 화장실과 파우더룸을 따로 갖췄다. 2층에는 침

실, 지붕에는 4kW급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에너지 소비량도 대폭 줄었다.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씨마브이 모노블록’을 스마트코티지에 설치했다.

LG전자는 ‘윌케이션’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코티지를 기획했다.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 컴팩트와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도 갖췄다.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해 여유로운 삶과 ESG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인텔 ‘13세대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공개

올 글로벌 노트북 350종에 탑재

인텔이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를 앞세워 노트북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선다.

인텔코리아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국내 공식 출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텔코리아는 이날 ‘인텔·이보™ 업데이트’와 ‘신규 제품의 세부 라인업 및 사양’을 공개했다.

인텔코리아는 이보(Evo) 인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노트북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텔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시

장에 약 350종의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HP, 레노버, MSI, 에이수스, 에이서 및 기가바이트 등 국내외 제조사들은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 신제품을 프로세서 출시에 맞춰 국내시장에 출시 중이다.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HX 프로세서를 필두로 H, P, U 시리즈 제품으로 구성된다. 국내 제조사들은 노트북의 ‘가벼운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트북 PC에 대부분 H, P 시리즈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게이밍과 전문가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노트북에는 HX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

/허정원 기자 zelkova@

KYO
WON 교원투어

떠나고 싶은 마음에게
쉽게 답을 주는 여행사

여행이지

교원이 만든 새로운 여행사 여행이지와 함께
당신이 원하던 여행을 쉽게 떠나 보세요



WEB AWARD
22 INNOVATOR

웹어워드코리아 2022
문화/레포트 부문 대상 수상

수상대상 (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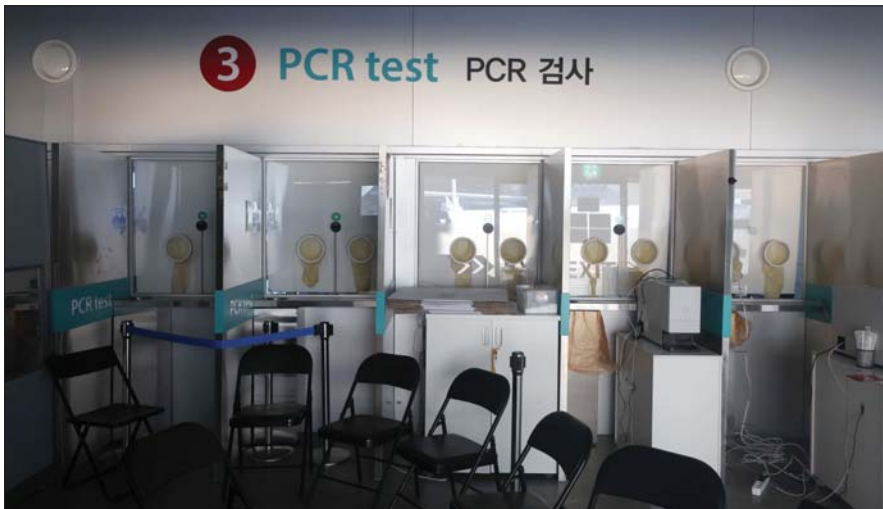
www.kyowontour.com

리오프닝 효과 못 본 화장품·면세株, 中 양회 기대감 ‘쑥’

LG생건·아모레퍼시픽 주가 하락
中 2월 제조업 PMI 11년만에 최고
리오프닝 효과 판가름 분수령 예상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관광 및 호텔, 화장품·면세 관련주들이 최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지난달 1.26%, 3.67% 오른 반면 대표 화장품주로 꼽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10.09%, 4.88%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리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1일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가 리오프닝의 효과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에도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호텔 신라와 롯데관광개발은 전일 대비 각각 1.12%, 1.60% 하락한 7만9300원, 1만

41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50%, 4.48% 오른 67만8000원, 14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으나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홍콩 경기와 금융시장 흐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1월 홍콩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36.7% 급감했고, 수입증가율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0.2%로 부진했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 수출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효과는 분명히 잠재해 있지

만 당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더불어 정찰 풍선사태로 재차 긴장감이 고조된 미·중간 갈등 등은 홍콩을 위시한 중화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4일 열리는 양회를 앞두고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 전망도 명확해져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경제를 총괄하게 되는 리창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3월1일 2월 중국제조업PMI지수발표를 시작으로 1~2월 경제지표발표가 3월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리오프닝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토스증권, 美 주식거래 시장 존재감 ‘톡톡’ ‘KB밸류포커스펀드’ 액티브펀드 수익률 1위

직관적인 앱 구성, 차별화된 서비스
1월말 기준 美 주식 거래액 4.7조

토스증권이 업계의 미국 주식 거래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쉽고 직관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성과 토스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2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액은 4조6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 거래액인 24조3300억원의 19.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말 3.4%였던 시장점유율이 1년새 6배 가까이 큰폭으로 성장했다.

현재 미국주식 시장 점유율 1위는 키움증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 수준으로 38.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과 삼

성증권이 5조원대의 미국주식 거래액을 보유 중이다. 토스증권의 약진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기존 증권사들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토스증권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는 380억원인 업계 8위 수준으로 국내 대형 증권사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다.

토스증권은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올 상반기 선보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큰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했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4월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미국 주식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등 거래 종목을 확대해 본격적인 위

탁매매 수익 확대에 나선 상태다.

지난 2월부터는 한국시간으로 낮 시간대에도 투자할 수 있는 데이마켓 서비스를 출시했다. 거래 시간에 따라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데이마켓으로 구분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데이마켓에서는 지정가와 시장가 매매로 거래할 수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브로커 및 환전 은행 이중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매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서비스 출시 1년여 만에 2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것은 토스증권이 제시한 투자방식에 고객이 동의해 준 결과”라며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혁신적인 투자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KB자산운용, 3개월 수익률 10.24%

KB자산운용의 ‘KB밸류포커스펀드’가 500억원 이상의 액티브 주식형 펀드 71개 가운데 3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밸류포커스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10.24%로 집계됐다.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 중 4개(KB밸류포커스, KB연금가치주증권전환형, KB중소형주포커스, KB주주가치포커스)가 KB자산운용의 펀드다. 행동주의펀드 관련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오스템임플란트와 SBS를 편입한 것이 수익률 상승의 요인이 됐다. 최근 3개월간 오스템임플란트는 76.6%, SBS는 29.5%씩 각각 상승했다.

KB자산운용은 두 종목을 저평가 기업으로 발굴해 2020년, 2021년부터 보유 중이다. 이 밖에 2015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골프존도 34% 이상 올랐다.

펀드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골프존(11.07%) ▲오스템임플란트(9.57%) ▲티앤알바이오랩(5.22%), ▲SBS(4.92%) 등이다.

‘KB밸류포커스’는 2009년 설정된 가치주 대표 장수 펀드로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62.8%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 수익률로 환산하면 매년 10%이상 수익을 낸 셈이다. 기업의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선별해 장기 투자하고 복리수익을 추구한다는 운용철학에 맞게 운용한 결과라고 KB자산운용 측은 밝혔다.

또한 KB자산운용의 중소형 가치주 펀드인 ‘KB중소형주포커스펀드’도 3개월 수익률 10.0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관여활동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기자

우미희망재단 산재피해·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우미드림파인더’ 참여자 모집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산업재해 피해 및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초등학교5학년~중학교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미드림파인더’는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1:1 멘토링 ▲진로 체험 및 탐색 프로그램 ▲국내 및 해외 캠프가 있다. 참여아동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꿈 지원 키트와 진로 장학금도 제공한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2022년 우미드림파인더 활동 모습.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는 아동이 능동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는 해외 캠프도 함께 진행해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미드림파인더’는 우미건설이 출연한 공익법인인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삼성증권, 중개형ISA 채권매매 개시

국내 장외채권 매수 가능

삼성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매매가 오는 6일부터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권 매매 서비스 도입으로 중개형ISA에서 국내 장외채권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ISA 계좌는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5세에서 19세 미만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며, 만기 시 과세소득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한 손익은 9.9%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 2021년에 처음 등장한 중개형ISA은 개별 주식매매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채권까지 확대된 것이

다.

예를 들어 채권을 투자해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5백만원일 경우, 비과세 한도인 2백만원을 차감한 3백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동일하게 채권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 전체 5백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중개형ISA 계좌 3년 의무보유 기간 유지가 필수다.

김상훈 삼성증권 디지털마케팅담당 상무는 “ISA계좌는 절세의 만능키로 불릴 만큼 투자를 위한 필수 계좌”라며 “업계최대 계좌 및 잔고를 보유한 삼성증권 위상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상품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中企 지역산업 육성하고 경제 절반 이상 이끌도록 지원”

이영 장관, 전주·나주 등 호남지역 방문

중소 지원 올 80조 정책금융 공급
3고 복합위기 지원 22조8000억 투입
한시적 신규보증료 0.2%P↓ 계획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하루 호남지역에서 중소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역 산업 육성 의지를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지역 혁신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제품 제작현장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도 둘러봤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우범기 전주시장,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주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2번째)이 2일 전북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열린 지역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석한 기업인들은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를 현장에서 실감한다면서 어려운 금융여건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인 육성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와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3고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아

울러 고금리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를 0.2%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어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신기술 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해 5년 내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내 수출의 40% 이상을 기여한 숨은 영웅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엔 전남 나주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

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줬다.

이 장관은 기념식이 끝난 후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같은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며 현장 밀착 행정을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기문 4선 첫 행보는 ‘소통·내실 다지기’

새 임기 첫날 임직원들과 오찬·만찬
중소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 강조
국무총리 주재 외부 행사도 참석

4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첫 걸음은 ‘소통 강화’와 ‘내실 다지기’였다.

취임 첫 날 외부엔 공식 일정을 알리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 임기 첫 날인 이날 오찬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다시 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4년 더 잘해보자”고 임원들에게 인사를 전한 후 “4년은 굵직한 것보다 중

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서 내놓은 공약에서도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962년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탄생한 본분에 맞춰 2027년 2월까지 예정된 4년의 임기 동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가치 제고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공약을 통해서도 ▲대·중소기업·금융기관 등 출연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위한 신규자금 1000억원 조성 ▲전문인력·공동사업·협업거래·공동시설 건립 등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전용 공동 R&D 지

원예산 확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공동판매 활성화 ▲민간시장 납품단가연동제의 공공조달시장 적용 방안 마련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해 5월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회’를 ‘잘한 행사’로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용산에 터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인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참석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자리로 거듭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저녁 자리 역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하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소통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추가로 가졌다. 임기 첫 날 진행한 두 번의 식사를 내부 임직원들과 함께 한 것이 다.

김 회장은 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기중앙회 본부 부서명칭을 ‘실’로 통일해 본부·실·팀 체제로 개편하는 등 ‘1단 7본부 36실, 15팀, 14지역본부, 4공제센터, 1해외사무소’로 조직을 새로 꾸렸다.

김 회장은 오찬과 만찬 사이엔 경기판교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도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면서 “업계의 ‘만형’으로서 김 회장이 향후 4년간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산업계 ‘AI 내재화’ 위해 610억 투입

산업 DX 연구개발 신규과제 모집
공급-수요 AI 솔루션 상용화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급하는 솔루션 기업과 수요 기업간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 산업계 AI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23년 산업 디지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 모집’을 3일 공고하고 2025년까지 총 6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각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는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간 산업 분야는 AI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와 관심은 많았으나,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 스스로 AI를 도입하거나 기업간 협업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난 1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간 협업을 토대로 산업 생산 현장에 AI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솔루션·기업 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발적 디지털 투자 의지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을 선별해 전문인력 공급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밀착 지원과 규제 개선 등 민간 주도 DX생태계 조성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공고하는 연구개발 신규과제는 이같은 산업 AI 내재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총 3가지 방식의 신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자율주행 로봇, 보행로 통행 가능해진다

산업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과 함께 보행로를 통행하고, 이동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택배 로봇이나 불을 끄는 소찰로봇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력 부족과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과를 가진 핵

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로봇시장은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 13% 성장이 전망되며, 물류·경비·원격점검·음식제조 등 신 비즈니스 분야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51개 개선과제 중 39개(76%)는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연내 택배나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2024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2024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사람 우대?’… 공정위, 지자체 조례·규칙 196건 손본다

지자체와 협업 올 연말까지 개선
소비자 이익 저해, 진입제한 등 과제
행안부 합동평가에 실적 포함 계획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위촉시 관내 개업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급 자재 구매나 용역에서 지역 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위원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자치법규가 많다. 규제 유형별로, 소비자 이익 저해가 80건

〈자치단체별 개선과제 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대상건수	20	13	8	9	6	6	6	2	24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대상건수	15	10	13	12	17	18	15	2	196

/공정위

(40.8%)으로 가장 많고, 사업자 차별 67건(34.2%), 진입제한 40건(20.4%), 사업활동 제한 9건(4.6%) 등이며, 지역별로 경기 24건, 서울 20건, 부산 13건, 강원 15건, 전남 17건, 경북 18건 등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포함된다.

개선과제 세부 내역을 보면, 지자체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관내 소재 회계사로 제한하거나, 지자체 법률고문이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관내 소재 변호사로 제한하는 내용에서 지역제

한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에서는 우선 구매·사용·공급 등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한 지자체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소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역제한 규제가 특정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규제가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하는 영업방침이나 범위,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 조건 등을 직·간접 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은 조례가 꼽힌다. 한 지자체 운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불규정은 있으나, 운영자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 또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별도의 배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 배상토록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이같은 조례·규칙 개선 실적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경영악화 소상공인 채무상환 최대 4년 연장

소진공, ‘집중관리기업 제도’ 지원
업체 월 상환 부담금액 최대 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접수·지원한다.

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는다.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

〈집중관리기업제도 지원내용〉

/소진공

구분	세부사항
대상	▶입력 3년 이상 공단대출 원금잔액 합산 3천만원 이상보유 ▶시설자금 거치기간 중인 채무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기일 3개월 전 限 (운전자금 통합계좌 채무재조정의 경우 거치기간 잔여회차 무관)
신청·접수 시기	▶매월 1~9일
지원내용	▶다중 대출계좌 통합운용을 통한 월 상환 부담 완화
	▶최대 4년
제한사항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 취소결정시 이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

회·출력할 수도 있다.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달 1일에서 9일까지 소진공 77곳 지역 센터와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류 심사 등을 진행한다.

박성호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

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6개월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승호 기자

인천공항

개항 후 22년 만에 누적 환승객 1억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누적 환승객 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1년 3월29일 개항 후 22년 만이다.

인천공항 환승객은 개항당시인 2001년 163만 명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723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1년에는 54만 명 수준까지 급감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00% 성장한 271만 명을 기록하며 중국·일본 등 경쟁공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는 2023년 다양한 환승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해 환승객 수요회복을 견인함으로써 코로나 회복기 동북아 환승수요 경쟁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운 기자

한전, 친환경·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지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선정

한국전력은 중기부가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의 친환경·에너지분야 기술사업화 담당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요구되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지정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선별, 창업자금과 R&D, 초격차 전용 펀드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정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중 올해 친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환경·에너지 분야 등 5대 분야의 스타트업 270개사를 선발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의 투자, 사업화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5억원의 R&D 연계 지원을 받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농촌 빈집 개량’ 1주택자도 금융 지원

최대 2억원까지, 2% 금리 대출

정부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용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용자가 가능하다. 개량 용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용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금리는 2%가 적용되고 상환기관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이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지방의 저가 주택일 경우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진공, 中企 온라인 수출에 총력

참여기업 모집… 24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달 24일까지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존의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별 후 집중 지원을 통해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신설했다.

플랫폼 입점, 마케팅,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온라인전시회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온라인수

출 공동물류 등이 있다.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는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을 통해 아마존, 타오바오, 쇼피 등 플랫폼 입점과 제품 판매까지 지원한다. ‘온라인전시회’는 온라인사이트 내 전시관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다.

지나해 새로 생긴 ‘미디어콘텐츠마케팅’은글로벌플랫폼의미디어커머스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연계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내·외 물류거점과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
은퇴와 노후를 고민하는 당신!
.....<

은퇴플래너와 함께 시작하세요!

강창훈 대표

아주대학 불문과 졸업 (1986~1993)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수료 (1994~1997)

Mobile : 010-5305-2083
E-mail : jeipceo@hanmail.net



은퇴플래너 강창훈과 함께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중앙이아이피 강창훈 대표는 은퇴와 퇴직관련, 시니어 일자리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회사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강북구청, 광진구청, 용산구청 등 서울의 19개 구청 특강과 충남인재개발원, 경남인재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은행, 한전, KT, 시니어클럽, 새마을운동지회, 50플러스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20년 이상을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여성비전센터, 광명평생교육원, 연천통일평생교육원, 동두천평생교육원, 양평평생교육원,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원에서 지역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명쾌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의 분야

- 퇴직 후 정부지원제도 활용하기
- 퇴직 후 재취업 시장의 이해
- 창업 시장의 이해
- 시니어 구직시장의 이해 및 구직 전략
- 퇴직후 여가활동과 관계의 필요성
- 사회공헌의 필요성과 준비전략
- 중장년 핸드폰과 친해지기

주요 경력

- 현) 중앙이아이피(주) 대표 1999 ~ 현재
- 현) 시니어가이드 협동조합 사무총장 2021 ~ 현재
- 현)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고용연구원장 2018~ 현재
- 현) 다가치포럼사회적 협동조합 고문 2018~ 현재
- 전)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외래강사 2019~2020
- 전)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무총장 2012 2016
- 전)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위원 3년
- 전) 유)청운사회복지진흥원 대표 2014~2015
- 전) 코레일 인사노무분과 자문위원 4년 2014 ~ 2017
- 전) 청강문화대학교 산학협력전문위원 6년
- 전)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 자문위원 2008 ~ 2014
- 전) 고령사회 인력정책포럼 위원 2012 고용노동부주관
-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2015~2016
- 전) 은퇴경제연구소 대표 2011~2012
- 전) 소상공인진흥원 비즈코치 2011
- 전) (주)중앙에셋 대표 2006~2011
- 전) 삼일회계법인 연구원 94 ~ 99

면목동 노후주거지에 35층·145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면목 69-14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모아타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주거지가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면목동 69-14일대는 최고 35층, 1450세대 내외의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빠른 사업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서울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며 “모아타운 사업을

앞둔 주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주거환경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경계 없는 저

층부 계획을 통해 열린 아파트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연계 배치했다.

향후 인접한 모아타운 사업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검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보행로와 차선이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이 일대는 단지 내 외부공간,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돼 활기찬 지역의 생활가로가 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검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약 3000㎡ 규모의 공원이 생긴다. 가로의 교차지점에 공원을 만

들어 가로공간의 시각적 개방감을 높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시는 강조했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원 하부에는 생활체육 시설이, 상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아파트의 주동이 주변 지역을 위압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조망지점에서 용마산 등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했다.

면목동 69-14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때 관련 심의가 한꺼번에 이뤄져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

‘노마스크 개강’에 엇갈리는 대학생들

10명 중 7명 ‘마스크 안 벗는다’
마스크 없는 캠퍼스 활동 낯설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지배적

약 4년 만에 캠퍼스 ‘노마스크’가 가능해졌지만 개강을 맞은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23학번을 포함한 대학생 1110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72.9%는 약 4년 만에 찾아온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OT, MT, 축제, 동아리 등 대면 캠퍼스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65.4%(복수 응답)의 응답률을 차지하며 가장 큰 요소로 꼽혔고 ▲대학 동기, 선후배 등 친목 도모 및 소통이 늘어날 것 같아서(47.6%) ▲대면 수업이 대폭 늘고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36.0%) ▲교환학생, 해외 봉사 등 학교 지원 대외활동이 늘어날 것 같아서(25.7%) ▲조별 과제, 발표 등 수업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뒤이었다.

반대로 캠퍼스 내 마스크 미착용에



서울시내 한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줄 서 있다.

/뉴시스

대한 우려를 표하는 대학생도 27.1%로 집계됐다. ‘마스크 없는 대면 캠퍼스 활동이 낯설고 어색하다(26.9%)’는 의견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23.9%)’가 지배적이었고, ▲비대면 수업이 대폭 줄어들 것 같아서(15.9%) ▲용모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13.6%) ▲불필요한 대면 캠퍼스 행사 및 약속이 늘어날 것 같아서(12.0%)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해제 시설이 혼란스러워서(7.0%)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는데 비해,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28.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절반(50.0%)은 실내에서는 되도록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계획이라 답했고, 5명 중 1명(20.8%)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48.7%, 복수 응답)’으로 집계됐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서(45.0%) ▲마스크 벗은 모습이 낯설고 어색해서(34.1%) ▲용모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22.9%) ▲독감, 알레르기 등 질환을 피하고자(22.0%) ▲마스크 없는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11.7%) 등 다양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꼽혔다.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보다 주위 분위기나 방역 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34.5%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질 때, 17.6%는 실내외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겠다고 답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인천시, 새 신청서 건립에 ‘국제설계공모’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목표

인천시는 2일 신청사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이 목표다.

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69,091.1㎡, 연면적 80,417㎡, 공사비 2,117억 원, 총 설계비 94억 원으로 다양한 방식의 설계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국제입찰 방식으로 국내·외 건축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해 참가 등록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시는 기술심사와 2차례 본심사를 거쳐 6월 19일에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품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본심사위원 8명(예비위원 1명 포함), 기술심

사위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설계공모 지침서에 공개돼 있다.

최종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모 보상금이 나눠 지급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VE)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신하고 좋은 설계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건축가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의 기자

서울시, 원가심사로 작년 예산 1626억 절감

전국 최초 계약심사제도 도입

서울시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162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자치구·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4조 1032억원(절감률 약 7%)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한해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3조 6247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공사가 1489건(2조 5047억원), 용역·물품·민간위탁이 2138건(1조 1199억원)이었다.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계약심사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이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새 학기 등교 격려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 교육감은 2일 오전 8시에 서울 성북구 중앙중학교를 방문해 새 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마중했다. 등교맞이에 나선 조 교육감과 중앙중 교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가움을 나눴다.

/뉴시스

의원·약국에 ‘복지상담센터’ 안내판 배포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내 의약기관 7004곳에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관공서 방문을 꺼리거나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운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4~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록 전 자치구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시설이다.

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이나 그를 잘 아는 이웃 등이 상호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의원, 약국, 치과 같은 의약기관에 센터 안내판을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익숙함에 새로움 한 스푼… MZ 눈높이 맞추는 ‘장수 상품’

농심 한달간 ‘신라면분식점’ 팝업
2.6만명 방문, SNS 게시글 6000개

롯데제과 ‘가나 초콜릿 하우스’
디저트 카페 콘셉트 시즌2 성황

서울탁주제조협회 창립 61주년
MZ 의견 반영 ‘인생막걸리’ 출시

유통업계 장수 브랜드들이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고 젊어지고 있다. 중장년층 세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만큼 이제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변신에 나선 것이다.

◆이색 경험 제공해 호감도 상승

2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 상에 다양한 팝업스토어 방문 후기가 넘쳐나면서 유통업계가 관련 마케팅에 힘주고 있다. 소비를 통한 경험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MZ세대를 겨냥해 고객 참여형·이색 팝업스토어를 열어 관심을 끄는 것이다.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은 각각 ‘신라면’과 신제품 ‘쿠티크에센셜짜장’ 홍보를 위해 팝업스토어를 성수동에 열고 소비자들을 만났다.

농심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성수동 S팩토리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축한 ‘신라면분식점’을 실제 공간



농심이 S팩토리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축한 ‘신라면분식점’을 실제 공간으로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으로 구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만 6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신라면팝업스토어’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6000개 이상 등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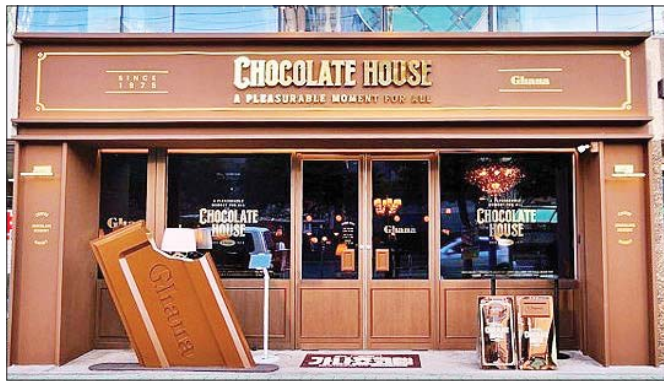
1986년 출시된 신라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과 포토부스, 신라면의 매운맛 정도와 면발의 식감, 토핑을 선택해 직접 맛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정도로 초콜릿의 대명사로 유명한 롯데제과도 젊은 고객층의 경험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은 지난달 12일 ‘가나, 디저트가 되다’라는 새 메시지와 함께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가나 초콜

릿 하우스’ 시즌 2(부산점)를 열었다.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2는 시즌 1과 동일하게 달콤한 초콜릿 향기와 풍부한 커피향이 가득한 디저트 카페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다. 낮과 밤에 각각 디저트 카페, 몰트바를 운영해 2가지 콘셉트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오픈 2주일 만에 누적 방문객 5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성수동에 오픈했던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1 때보다 40% 높은 방문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팝업스토어 방문객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최근 몇년동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던 만큼 당분간 팝업스토어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가나 초콜릿 하우스 시즌 2(부산점) 전경 /롯데제과

보인다”고 말했다.

더현대 서울은 지난해 약 250개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올해도 다양한 팝업스토어가 예정되어 있다. 위스키 브랜드 ‘잭 다니엘스’는 신제품 ‘잭 애플’ 출시를 기념해 지난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포토존 인증 이벤트와 바텐더들이 선보이는 칵테일 시음 행사도 진행한다.

◆익숙함에 새로움 더하고 MZ세대 의견 반영

익숙한 제품에 새로운 맛을 가미해 재미를 주는가 하면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막걸리 인기가 계속되면서 ‘맛있는 막걸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막걸리 업계 대표 브랜

드 서울장수의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아 MZ세대에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며 막걸리를 보다 즐겨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밀과 쌀의 황금비율로 만든 부드러운 저도수 막걸리인 ‘인생 막걸리’와 향긋한 유자향이 특징인 ‘달빛유자’는 젊은 세대가 보다 편하게 막걸리를 접할 수 있는 대표 제품이다. 특히 ‘달빛유자’는 다양한 안주와 페어링 하기 좋아 ‘디저트 막걸리’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SNS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장수의 오랜 역사성을 자랑하는 ‘국내 산장수 생막걸리’도 MZ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해 12년만에 현대적인 젊은 감각의 디자인으로 리뉴얼 했다. 아울러 2개의 공식 SNS 계정(서울장수/달빛인생)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굿즈 출시 소식 등 젊은 세대와의 스킨십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락 브랜드 한솔도 MZ세대와 함께 호흡하고자 신제품 출시 때마다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또 메인 메뉴만큼이나 사이드 메뉴를 즐겨 찾는 젊은 층을 공략하고자 1020세대 소비자에게 호응이 좋았던 닭강정과 해시 포테이토 2종으로 구성된 ‘알찬 스낵’ 신메뉴 2종도 최근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빙그레, 투게더 포장재 개선 ‘친환경 경영’

제품 2종 상단 수축필름 제거
새 뚜껑 개발, 플라스틱 사용 줄여

빙그레가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포장재 개선에 나섰다. 빙그레는 ‘투게더’와 ‘그라시아 쿠앤크’ 제품의 상단 수축필름을 제거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한 포장재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상단 수축필름은 뚜껑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이다. 빙그레는 최근 이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력을 개선한 새로운 뚜껑을 개발했다. 유통 과정과 제품



투게더, 그라시아 쿠앤크 /빙그레

개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개월간의 유통 테스트를 시행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빙그레는 이밖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22

년 6월에는 대표 제품인 투게더와 바나나맛우유 3종(바나나맛우유, 바나나맛우유 라이트, 딸기맛우유)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계량적인 정보로 표시하는 제도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잇츠, 간편가입 기능 더해 ‘리뉴얼’

리워드·쿠폰류 사용확대 등 개선

롯데GRS는 통합 주문 앱 ‘롯데잇츠(Lotte Eatz)’의 론칭 3주년을 기념해 앱 서비스를 리뉴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GRS는 ▲사용성 및 직관성을 확대한 시각적 개선 ▲간편 가입 기능 ▲리워드 혜택 확대 ▲모바일 쿠폰류 사용 확대 등 기능적 측면을 개선했다.

기존 롯데멤버스 아이디로만 로그인 이 가능한 회원 가입에서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로 간편 가입 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매장 이용 주문 고객을 위한 리워드 보상 제공을 위해 매장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임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워드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주문 금액 구간에 따른 ‘칩(CHIP)’



롯데GRS는 통합 주문 앱 ‘롯데잇츠(Lotte Eatz)’의 론칭 3주년을 기념해 앱 서비스를 리뉴얼 오픈한다. /롯데GRS

제공에서 최종 결제 금액에 따른 리워드 혜택 서비스로 개선한 ‘Eatz마일’로 개선 및 앱을 활용한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리워드 혜택을 매장 주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든 브랜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영업종료 오후 10시로 1시간 앞당겨

내달 3일부터 전국 점포에 적용

4월3일부터 이마트의 전국 점포 영업 종료 시간이 종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당겨진다.

이마트는 그동안 136개 점포에 대해 오후 11시 영업 종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오후 10시까지 영업했다. 단축 운영하는 전체 66개 점포 중 23개 점포는 상시 오후 10시 영업 종료, 나머지 43개 점포는 동절기 한정 단축 운영 형태다.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는 이마트의 전 점포가 오후 10시에營業을 종료할 예정이다. 단, 야간 방문객이 많은 왕십리·자양·용산·신촌점 등 4개 점포는 10

시 30분에營業을 종료한다.

영업시간 조정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썬세일’ 같은 대형 행사와 여름 휴가철 등 전체 고객이 늘고 야간 방문 비중도 커지는 시기에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 고객 편의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 이마트 매장을 찾는 고객 비중은 2020년 4.4%에서 2022년 3.0%로 감소했다. 야간 방문 비중은 줄어든 반면 ‘피크 타임’에 고객들이 몰리는 집중도는 높아졌다. 2020~2022년 시간대별 매장 매출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오후 2~6시가 가장 컸다. 평일에는 40%를 차지했고 주말에는 절반에 육박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오리온 ‘아이셔’ ‘아이셔에이슬’ 상시판매

하이트진로가 오리온 ‘아이셔’와 손잡고 한정 판매해 온 ‘아이셔에이슬(사진)’을 소비자 요청을 적극 반영해 상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셔에이슬은 2020년 10월 소주류 최초 브랜드 협업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상큼한레몬 맛에 강력한 짜릿함으로 출시 때부터 화제가 됐으며 한 달만에 조기 완판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완판 이후 소비자들의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져 2021년 6월, 2022년 3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재출시됐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쿡킷’ 전국 지정일 택배배송

오전 7시주문 주문시 지정일 배송

CJ제일제당의 밀키트 제품을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날짜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 ‘쿡킷(COOKIT)’의 배송 서비스를 ‘전국 지정일 택배배송’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론칭한 쿡킷은 셰프의 비법을 담은 레시피와 최고 품질의 재료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는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다.

쿡킷 배송은 전일 오전 7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부터 원하는 배송일 지정이 가능하다. 배송 희망일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원하는 도착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역은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2월 28일 오후 주문 제품부터 변경된 배송 서비스로 제공된다.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지역에 한해 제공됐던 기존 새벽배송은 3월 1일 배송분을 끝으로 종료됐다.

/신원선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19개 제약바이오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를 발족,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약바이오협회 AI 기반 R&D 디지털 전환 앞장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발족
초대 위원장 동아ST 한태동 상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19개 제약바이오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를 발족,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R&D 현안 논의, AI신약개발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 공유,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 대정부 정책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AI신약개발 경진대회, AI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워크숍 등 2023년도 AI신약개발지원센터 사업 추진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 등의 유출 걱정 없이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연구협력모델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동아ST 한태동 상무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태동 위원장은 "AI신약개발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한 산-학-연 협력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연구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며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협업체계가 구축되면 저비용 고효율의 신약개발 R&D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제도 도입

직원 80%에 부여... 5년간 진행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한다. 계열사 내에서 롯데그룹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사업 초기 급성장과 함께 육성될 현재의 직원들은 미래의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주축이 될 것이고, 인수합병(M&A), 사업모델 구축 등 회사 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향후 국내 바이오 인적자원 시장에서 가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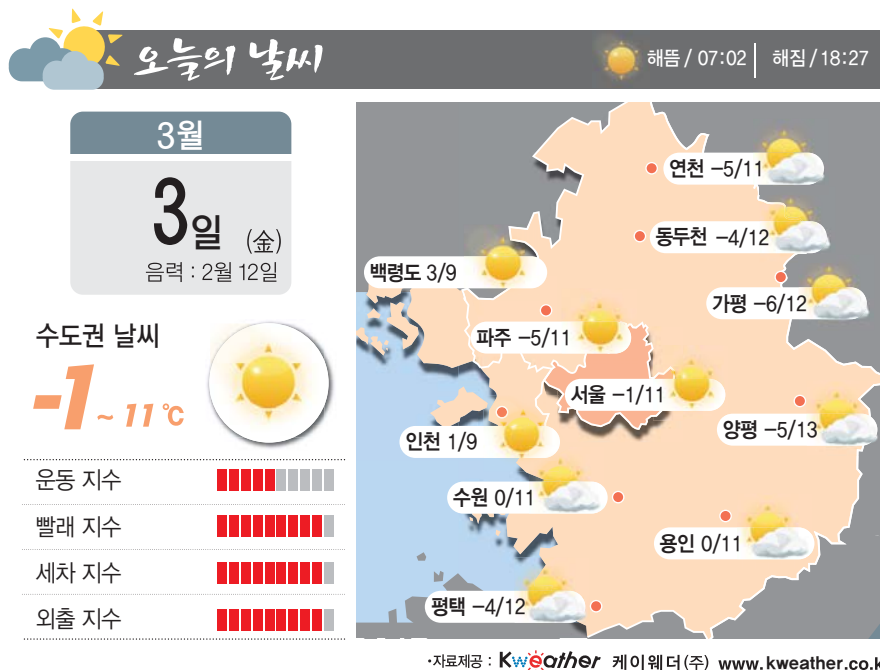
이는 재직 중인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로열티 강화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스톡옵션 제도는 매년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전 직원 중 약 80% 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여하게 된다. 사업 초기라는 취지에 맞춰 향후 5년간 진행되며, 매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6월 법인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1월 1일 BMS 미국 시리큐스 공장 인수를 완료했으며 2034년까지 국내에 총 36만리터 규모의 메가플랜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글로벌 톱 10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의 성장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세경 기자



삼바, 화이자 2410억 CMO 계약 올해 누적 수주 '13조+ α' 전망

2029년 12월31일까지 계약
지난해부터 대형 수주 줄이어
34종 이상 CMO 계약 논의 중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는 처음으로 매출 3조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초부터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1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241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CMO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개별 매출의 15.3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계약기간 종료일은 생산 일정 등 계약조건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1540억원 규모 CMO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노바티스와 1005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CMO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도 4000억원이 넘는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맺으며 지난해 수주 금액은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누적 수주 금액은 95억 달러(약 12조46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0억 달러(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건수는 CMO 74건, 위탁개발(CDO) 101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착공 23개월만에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24만L)을 갖춘 4공장 부분 가동을 시작해 위탁생산능력을 강화했다. 4공장은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 8개사와 11종 제품에 대해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추가로 26개 이상 잠재 고객사와 34종 이상의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 확대와 공장 가동을 상으로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매출 3조13억원을 기록, 연간 매출액 3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영업이익은 9836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송도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시운전 완료

바이오·케미컬 인재 결집... 신약 모달리티 확장 (치료접근법)

파일럿 랩 등 최신 연구설비 갖춰
2분기 내 연구원 입주 마무리 계획

셀트리온은 2일 송도에 위치한 신규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시운전을 완료하고 최종 밸리데이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본격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연구개발(R&D)-공정개발-임상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합 대규모 연구센터 신축을 결정하고, 착공 후 약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의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 전경. /셀트리온

해당 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300명 이상의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케미컬) 연구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센터 내에는 비임상 원료 의약품(DS)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랩을 비롯해 비임상 완제의약품(DP) 생산을 위한 충전 설비 등 최신 연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연구센터 내에서 임상 진입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이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연구센터 내 연구원 입주를 2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이오 및 케미컬 의약품 연구 인력의 집중화를 통해 새로운 신약 모달리티(Modality·치료접근법) 및 약물전달 기술로 연구 분야를 꾸준히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LG생진 '비온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출시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 함유

LG생활건강의 클린 뷰티 브랜드 비온드가 성분부터 패키징까지 '피부에는 순하고, 지구는 깨끗하게'를 모토로 한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을 출시했다.

엔젤 아쿠아 크림 2종은 청정 지역 울릉도에서 자란 전호 추출물과 릴리프 시카 콤플렉스를 함유한 포몰라가 피부에 수분감과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

'엔젤 아쿠아 수분 진정 크림'은 수분감 있게 발리는 젤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24시간 동안 피부 겉보습과 속보습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엔젤 아쿠아

보습 장벽 크림'은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로 탄력 있는 사용감과 부드럽고 매끄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피부에 전달된 보습력이 깊은 곳에서도 100시간 동안 유지되며 깨끗하고 건강한 수분과 영양 가득한 유분이 피부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하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엔젤 아쿠아 크림 2종 러브어스 에디션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해 한국비건인증원의 공식 인증을 받은 비건 처방 제품. 또한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적용한 '재생 100%(매스 밸런스 기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다.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페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업그레이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더욱 프로페셔널한 피부 관리를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슈퍼콜라겐'을 출시한다.

바이탈뷰티의 슈퍼콜라겐은 국내 기능성 콜라겐 판매 1위 제품으로 누적 판매 2억병을 기록하는 등 13년 동안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제품이다.

업그레이드 출시한 이번 슈퍼콜라겐은 AP콜라겐호소분해펩타이드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국내 최대 피부 지표 개선을 인정받았다. 기존 대비 증량된 AP콜라겐호소분해펩타이드 1200mg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오틴 3000%, 나이아신 100%를 함유해 피부 속부터 밀도 있게 채우고 전신 피부의 속보습 관리까지 도와준다.

/이세경 기자

압도적 배후수요 쏟아지는 유동인구를 선점하라!

23년 2월
입주예정

대형병원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



골든에비뉴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지구 골든에비뉴 PREMIUM 5	더블 역세권 망포역, 서천역 (예정)	동탄도시철도 101역 (예정)	선임대 3~8층 대형병원 입점 확정!	압도적 위치 사거리 코너 맨앞!	압도적 배후수요! 반경1Km내 22,566세대
--------------------------------	-----------------------------------	-------------------------------	-----------------------------------	--------------------------------	--



병·의원
임대문의

031) 293-0700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 (주)
시공사: (주)한창종합건설
시행위탁사: (주)골든에비뉴



두산·중구청, 친환경·자원순환 문화 확산 나서

(주)두산이 친환경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다. (주)두산은 2월 28일 서울시 중구청 청장실에서 중구청과 ‘쓰레기연구소 새롭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주)두산 유통BU 송석기 상무(오른쪽)가 김길성 중구청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두산



LGU+ ‘틈에서 ‘BTS 다이아나이트’ 즐기세요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9일까지 MZ세대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에서 레고코리아(LEGO Korea)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다이아나이트(Dynamite)’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SK엔무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SK엔무브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나선다. (왼쪽부터)이중우 SK엔무브 e-Fluids 사업실장과 홍사단 조성두 이사장이 지난 달 24일 서울 종로구 홍사단 본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스타벅스 “유기 동물과 함께 봄소풍 떠나세요”

스타벅스가 유기 동물 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오는 3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보호소 동물들 봄소풍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보호 동물 입양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콜마그룹

튀르키예 구호성금 1억 기탁

콜마그룹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위한 긴급 지원 행렬에 동참한다.

콜마그룹은 최근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해 1억원의 구호성금을 한국-튀르키예 친선협회에 기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한국콜마홀딩스를 비롯한 한국콜마,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콜마그룹 관계사들이 참여했다.

콜마그룹이 마련한 성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국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과 지역 재건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입학 축하합니다”… LG이노텍, 개인노트북 ‘통 큰 선물’

정철동 사장, 임직원 자녀 응원 “구성원 경험혁신 활동 이어갈 것”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이 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 선물과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LG이노텍은 2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임직원 492명에 학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매년 3월 입학시즌을 앞두고 풍성한 학용품 선물세트를 임직원에게 전달해왔다. 자녀의 첫 초등학교 입학을 응원하는 취지다.

올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만화 캐릭터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필수 학용품을 현직 초등학교 1학년 교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 면밀히 파악해 3종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만족도와 선택의 폭도 넓혔다.

특히 정 사장은 아이들에 축하편지



LG이노텍 임직원 가족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아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를 별도로 동봉하기도 했다. ‘사장아 저씨’라는 이름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LG이노텍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학용품 세트와 함께 개인노트북도 함께 선물한다. 자녀가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인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수령할 수도 있다.

LG이노텍은 2011년부터 ‘생애주기 맞춤형 선물’ 프로그램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선물’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치를 때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육아와 양육 여정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임직원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으며 자부심을 높이는 ‘구성원 경험’으로 평가받는다.

HMM, ‘제네타 CEI’ 최우수 친환경 선사 선정

(탄소배출지수)

동아시아~美 서해안 구간 최저 배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선제 대비”

HMM이 동아시아~미국 서해안 구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한 최우수 친환경 선사로 선정됐다.

2일 HMM은 노르웨이 컨테이너 운임 분석업체 ‘제네타’의 2022년 4분기 탄소배출지수(CEI) 조사 결과 동아시아~미국 서해안 구간에서 최우수 선사로 뽑혔다고 밝혔다. 제네타는 스웨덴 해양산업 분석업체인 마린 벤치마크와 함께 정기 선사들의 CEI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선박의 실제 운항데이터와 선박 스펙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CEI는 선사들의 탄소집약도 관리



HMM 컨테이너선

/HMM

체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2일 HMM은 노르웨이 컨테이너 운임 분석업체 ‘제네타’의 2022년 4분기 탄소배출지수(CEI) 조사 결과 동아시아~미국 서해안 구간에서 최우수 선사로 뽑혔다고 밝혔다. 제네타는 스웨덴 해양산업 분석업체인 마린 벤치마크와 함께 정기 선사들의 CEI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앞서 HMM은 지난해 7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엔 국내 선사 최초로 친환경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 9척을 척을 발주하는 등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친환경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외 5개사와 메탄올 생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HMM 관계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친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소공연

허영희 상근부회장 취임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허영희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사진)이 2일 취임했다.



허 부회장은 1987년 공직에 몸담은 이후 199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3년 넘게 근무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 또한 공직 퇴임 이후 직전엔 소진공 부이사장을 역임하며 최일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

‘KBIZ AMP’ 17기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인 ‘KBIZ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17기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KBIZ AMP는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휴먼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했다. 지금까지 16기에 걸쳐 약 95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를 양성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자리잡았다.

KBIZ AMP 17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5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한다. ▲CEO의 비전(리더십·변화관리) ▲CEO의 전략(경영트렌드·글로벌·DT) ▲CEO의 통찰(역사·고전) ▲CEO의 감성(공연·힐링·네트워크)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최고 권위 명사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인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남길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실장 김미경 △예산경영실장 이정현 △성과홍보실장 이재영 △행정지원실장 성무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심사단장 이정재 △혁신기술평가단장 김진수 △혁신전략센터장 최영성 △생활방사선규제단장 유승재 △기획단장 이재항 △경영관리단장 황선철 △감사부장 박영식 △전문위원 정승영

◆한양증권 ◇상무 승진 △금융솔루션부 김영하 ◇이사 승진 △법인영업부장 최민호 △여의도PWM센터 조한규 △IB융복합부장 홍종민 △부동산구조화금융부장 박준형 △파생금융부장 박우성 △주식파생부 노우성 ◇부장 승진 △SF사업1부장 박준우 △특수IB금융2부장 박성민 △종합개발3부 김현승 ◇차장 승진 △송파RM센터 김성희 △자산운용부 박송희 △종합투자부 심용우 △부동산금융1부 조경준 △부

동산금융2부 노대섭 △부동산금융2부 손진현 △프로젝트금융2부 조정보 △투자금융2부 전문기 △특수IB3부 김광호 ◇과장 승진 △금융솔루션부 이명진 △전략투자부 박연아 △부동산단체투자부 조소정 △복합금융부 김재덕 △멀티금융부 전호 △SF사업1부 김병화 △특수IB금융1부 유민상 △종합개발1부 이준호

◆신영증권 (승진) ◇전무 △구조화금융본부 배준성 △CM본부 신혁진 ◇상무 △WM사업본부·APEX프라이빗클럽청담·APEX대치 임동욱 △리서치센터 김학균 △FICC본부 전윤구 △ECM본부 정성진 △홀세일본부 신영수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오영표 ◇이사 대우 △APEX광주·APEX대구·APEX대전 원장연 △에쿼티세일즈앤솔루션부 이충훈 △자산전략팀 박소연 △자산전략팀 이경록 △PE부 이상섭 (진보) ◇총괄 △자산배분솔루션본부·리서치센터·홀세일본부 박찬용 ◇담당임원 △APEX X패밀리오피스부 서울 강민규 △APEX X프라이빗클럽해운대·APEX서면 서영숙 △투자솔루션부 이재연 △헤리티지

솔루션부 박용훈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실 △주필 (이사) 노동일

부음

▲이영자(故 위제 정형식 명예회장 부인)씨 별세, 정도언 회장(일양약품) 모친상=4일,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3월 4일, 장지 경기도 용인 선영. 02-2072-2020

▲심복익씨 별세, 김일주(드링크인터네셔널 회장)씨 장모상 = 1일, 전남 나주 애향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61-334-9000

▲이봉희씨 별세, 김승우(순천향대 총장)·신자·승무·승조(전 항공우주연구원장)·영숙·승인·승애씨 모친상 = 1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3일 정오. 02-797-4444

▲유옥자씨 별세, 박인수·은주·은숙씨 모친상, 장광근·이석용(NH농협은행장)씨 빙모상 = 1일,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월 3일,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실효성 없는 김영란법 이참에 없애자



이 정 혁 의
西村브리핑

얼마전 한 기업체 홍보 담당자와 만났더니 “시행 초반에야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 봐 다들 조심했지만 솔직히 요즘 누가 3만원 따지면서 밥을 먹느냐”며 “밥값이 3만원 넘으면 식사 인원을 부풀리는 식으로 꼼수를 동원한 지 오래됐다”고 털어놨다.

서울 시내 음식점 사장님도 “식재료값과 인건비가 폭등해 음식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맥주나 소주 같은 음료값을 고려하면 1인당 3만원은 지켜질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는데 법은 그대로인 탓에 식사비 한도를 어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 누가 경조사비를 5만원만 내느냐’는 푸념도 쏟아진다. 명절이면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동원되는 것도 기형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식사비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조정된 적이 있었으나 식사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들에 대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사비 외에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은 5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은 2017년 개정을 통해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란법’의 도입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제1조)였지만 법의 파급 효과가 공직자·공직기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전 국민의 생활상을 바꾸어 놓았다. 불필요한 접대문화, 인식개선,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등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편법과 꼼수가 만연해 실효성 없는 법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큰 도둑은 못잡기에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당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와 박영수 특검 사건, 광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등이 대표적이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51만여 명에 이르지만 2021년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에 불과했다. 위반 신고 건수도 2018년 4386건에서 2020년 이후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김영란법’을 유지하면 물가 상승으로 식사비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식사비 기준을 변경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청탁과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뇌물죄로 처벌해 부정파괴를 막자는 법의 취지는 살리고, 실효성 떨어진 ‘김영란법’은 이참에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홍식 작가의 ‘자존감 산문집’에 나오는 “필요없는 답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워져 있는 답이 필요 없을 때는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글귀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linh@metroseoul.co.kr

끊이지 않는 예탁원 사장 낙하산 논란



김 지 수 첵
원 관 회
(자본시장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선에 있어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있었던 4차례 예탁원 신임 사장 선임에서 매번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 2월 말로 퇴임한 이명호 사장까지 세 명의 사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번에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비관료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지난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예탁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이순호 내정자는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으로 일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 내정자는 빠르면 오는 3월 3일 임기 3년의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에 취임한다.

이 내정자는 신임사장 공모 직후부터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보는 인사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당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는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은행법 전문가로 연구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탁원의 주 업무인 자본시장과 무관해 예탁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됐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예탁원 사장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사장 선임에 앞서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예탁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노조는 이 내정자의

사장 선임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다. 예탁원 사장직 응모 자진 철회, 사장 재공모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에서 이 내정자의 선임을 승인할 경우 예탁원 노조는 출근 저지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예탁원 사장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진 상황이다. 우선 노조의 반발을 잘 해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정자는 증권형 토큰(STO) 사업, 자본시장법 개정, 차세대 시스템 추진, 서울·부산이원화된 업무공간에 따른 구성원 고충 해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내정자가 이른 시일 내에 경영 능력을 입증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예탁원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kh@

오늘의 운세 3월 3일 (음 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와 싸움에서 이기려 할 것 없다. 48년생 용띠와의 거래는 무난. 60년생 기술력실력을 발휘하고 돈도 생긴다. 72년생 지금실배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이니 다시 시작을. 84년생 쓸모없는 것이 때에 따라서 쓸모가 생긴다.



37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49년생 움직여서 돈이 생기니 할렐도 생긴다. 61년생 마른눈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73년생 탐구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85년생 거래에서 넓은 마음과 양보를.



3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길이 보인다. 50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62년생 일처리 걱정만하고 해결은 못한다. 74년생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6년생 취미와의 부동산 거래는 실패야 한다.



39년생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니 생각을 펼쳐보자. 51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63년생 물은 고이만 썩기 시작. 75년생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친다. 87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나에게 온다.



40년생 명에는 높아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52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64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76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고 노력. 88년생 큰술은 쉽게 만들어지지 못한다.



41년생 가족과 협동하여 일을 성사. 53년생 자식의 재능이 두드러지니 지원을 아끼지 마라. 65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구니 이득이 많다. 77년생 남다른 재주가 있어 든든. 89년생 하루 종일 번뇌가 많으니 명상을 추천한다.



42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54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66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8년생 물 건너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90년생 남이 하는 일을 해방은 말자.



43년생 운동 열심히 하고 주변을 청결해. 5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7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7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는 것이. 91년생 연인에게 자신만을 알아달라고 늘어지지 않도록.



44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56년생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68년생 날씨가 맑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80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오늘은 말조심. 92년생 분수를 모른 채 날뛰는 것을 당랑거칠(螳螂巨軀)이라 일컫는다.



45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도 인생사. 57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69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81년생 자신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보람. 9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바로 내 도끼이다.



46년생 말이 씨가 되니 비판적인 말은 피해보자. 58년생 자식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라. 70년생 부동산에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을. 82년생 신세 찢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94년생 이빨 빠진 호랑이의 심정을 알 것 같다.



47년생 증명하고 나서 가족정체성에 혼란이 오니 마음을 단단히. 59년생 먹고살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71년생 묶던지 한걸음부터 시작. 83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공부부를 더해보라. 95년생 요령보다는 실력으로 백발백중(百發百中)되도록.

김상회의四季

결혼이 힘든 연인



삼포세대라 해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 세대로 불린다. 이 신조어에 더하여 오폭세대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앞의 세가지 포기과 더불어 취업과 주택구입까지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치솟아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들에 비해 살기가 더 팍팍해진 환경에 놓인 것임을 방증한다. 부모세대는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변 인프라는 좋지 않았어도 취업과 결혼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어느 순간 결혼포기 세대가 돼 버린 것이다.

예전에는 결혼이 힘들다며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딸을 둔 어머니들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골드 미스와 불리는 아가씨들은 그렇다치고 총각들도 결혼생각이 없다며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걱정은 걱정이다. 얼마 전에 곱상한 인상의 부인이 상담을 왔다. 예전 같으면 60대는 완전한 노부인으로 불려야겠으나 세월이 젊어져서인지 나이 먹은 티가 별로 없어서 십년은 젊게 보였다. 그러나 얼굴에는 수심이 있다. “선생님 제 딸아이인데요. 도대체 언제 결혼운이 있는지 답답합니다.”하면서 생년월일을 내보였다. 보자니 일주 백호살에 월지에는 과속살(홀로 사는 과부살)이 보인다. 옛날 같으면 어른들끼리 공합을 맞혀보고 혼사를 진행시켰을 텐데 여자사주로 꺼리는 하나가 백호살과속살이다. 그런데 관성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선을 봐도 성사가 어렵고 어떻게 연애를 한다 해도 결혼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 따라서 결혼은 늦게 하라는 소리를 듣는다. 늦게 해도 평탄한 관계지속이 어려워 금방 이혼을 하고 재혼을 여러 번 하게 되어 나중에는 혼자 사는데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3	6					5	7	
9	7		3	4		1	2	
						9		
	4					7		
	9							
6	3			2	1		8	4
4	1						2	9

	3				7			
			8					1
8				7				
			6		8		2	
		4				1		
	5		2		4			
				6				7
4				7				
		8					5	

정답

6	2	4	8	9	5	8	1	7
7	8	9	1	2	6	4	8	9
9	8	1	2	8	7	6	2	9
5	9	2	7	8	8	1	6	4
8	1	8	6	9	1	9	7	2
1	6	7	2	9	8	9	9	8
8	7	9	9	6	4	2	8	1
2	1	8	9	7	8	9	4	6
4	9	6	8	1	2	7	9	8

8	9	7	1	2	6	8	9	4
2	6	9	4	8	8	9	1	7
4	1	8	9	7	8	2	6	
8	4	8	7	6	2	1	9	9
6	9	1	8	9	4	7	8	2
7	2	9	8	1	9	4	6	8
9	8	6	9	4	1	2	7	8
1	7	2	6	8	8	9	4	9
9	8	4	2	7	9	6	8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챗GPT와 와인을 즐기는법... 그래도 건배는 사람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87

영국의 수제 맥주업체 앳워터 브루잉 (Atwater Brewing)이 '인공지능(AI) IPA'라는 새로운 맥주를 선보였다. 이슈가 된 것은 불인 이름처럼 AI가 고안한 레시피로 만들어서다. IPA는 맥주의 한 종류로 알코올 도수가 높고, 강한 쓴 맛과 아로마의 향이 특징이다.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앳워터 브루잉의 사장인 케이티 맥브래디가 대표 AI 채팅로봇(챗봇)인 챗GPT에게 "IPA 레시피를 써줘(write me an IPA recipe)"라고 했더니 미국산 홉에 유럽산 홉까지 섞어 알코올 도수 6.9%의 IPA를 만들어냈다. 집에서나 만들 양이 길래 양조 시스템에 맞게 레시피를 20배팅로 확장해 달라고 했고, 실제 맥주 생산까지 이어졌다.

맥주보다 수십 배는 더 복잡하겠지만 AI가 양조한 와인을 맛볼 날도 멀지 않았을 터. 오늘의 와인 테이블에 같이 앉



프랑스 상파뉴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아름다운 여성.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왼쪽), 사막마라톤 결승선에 들어온 뒤 와인을 마시는 여성 마라토너. 팝아트 스타일로(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와인 한 잔, 반 고프 화풍으로.



/달리2

을 이는 바로 챗GPT다.

다음은 챗GPT와의 대화다. 일부 요약이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옮겼다.

먼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와인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안녕! 반가워요. 나는 AI 모델이라 와인과 그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지식이 있어요. 당신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해볼테니 자유롭게 물어봐요.”

당신이 만든 IPA 레시피를 봤어요. 와인 레시피도 줄 수 있나요.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데 과일 향이 풍부하면 좋겠고, 스테이크와 잘

어울려야 해요.

“난 AI라 와인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카버네 소비뇽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대략적인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 당신의 취향에 맞게 활용해보요. 와인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많아요. 당신이 원하는 와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와 실험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와인인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이 어떤 맛인지 알려줘요. “빈티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풀바디 와인으로 잘 익은 검은 과일과 바닐라, 오크향도 느낄 수 있어요. 타닌은 단단하지만 산도가 받쳐줘서 균형감이 좋다고 느낄거예요. 붉은 육류와 스테이크, 진한 치즈 등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려요.”

마음에 드는 와인이에요. 비슷한 와인 3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당연하죠. 카테나 자파타 카버네 소비뇽, 에라주리즈 맥스 리제르바 카버네 소비뇽이에요.”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뭐예요.

“첫번째는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두번째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차이점. 세번째는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물었어요.”

대화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AI로 로망을 실현할 시간이다.

몸은 주방에서 아이가 깔세라 숨죽여 마시는 와인 한 잔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프랑스의 상파뉴다. 그러니 AI에게 첫번째 부탁할 그림은 프랑스 상파뉴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아름다운 여성. 화풍은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로 주문했다.

다음은 과거로 돌아가 와인 한 잔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을 재현해달라고 했다. 힘겹게 사막마라톤의 결승 지점에 골인한 후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여성 마라토너다. 지구 반 바퀴는 돌아 참가했던 그 순간 와인 한 잔만 있었다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을텐데 말이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와인 라벨 붙이기가 가능할 때를 대비해 팝아트 스타일로 그림을 완성했다.

마무리는 별이 빛나는 밤, 별처럼 빛나는 샴페인 한 잔이다. 당연히 화풍은 빈센트 반 고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사람들은 왜 모두 분노에 차 있는가

한때 ‘댓글 읽기’가 취미인 적이 있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의 골목길 예찬론에 “오늘 모국어를 잃어 0개국어 구사자가 됐습니다...”라고 한탄한 댓글, ‘적군을 속하려면 아군 먼저 속여라’가 사자성어로 뭐냐고 묻자 ‘오늘일기’라고 답한 글 등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댓글을 전혀 보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댓글창이 전쟁터로 변해 재밌는 이야기는 없고 서로 헐뜯고 욕하는 말들만 난무해서다.

‘오색 찬란 실패담’을 탐독하다가 왜 세상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깨닫게 됐다. 도합 3시간(꽃은 날씨엔 최대 5시간30분)의 출퇴근길로 인해 번아웃을 겪게 된 저자가 퇴사 후 180도 달라진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분노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

회사원 시절 저자는 모든 것을 잠시도 참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골 카페 알바생이 불친절하거나 배달 직원이 예상 도착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택배가 잘못 왔을 때, 직장 동료가 어제 물어본 걸 오늘 또 물어볼 때, 내고 내도 자꾸 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할 때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자주 속에서 천룡이 났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왜 일을 이따위로 하지?’, ‘왜 실수한 만큼 사과하지 않지?’, ‘왜 굳이 여러 번 대답하게 만들지?’, ‘왜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비싼 거지?’ 따위를 궁리하느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단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는 결국 회사



오색 찬란 실패담

정지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

를 관두고, 분노가 치미는 삶과 결별하게 된다. 퇴사 후 왕복 3시간이 넘는 통근 과정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그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진다. 좋은 일 하나 없이도 히죽히죽웃는 습관이 들었고, 항상 웃게 된 뒤에는 화가 나 마땅한 상황에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저자는 “뭔가 이상할 때마다 ‘어찌됐어...’라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몇 번 득득 긁으면 의문이 사라졌다. 언젠가부터는 타인에게 갖고리처럼 날카로운 물음표를 들이대는 일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면서 “참을성의 역치가 높아졌 다기보단, 참을성이 필요한 사건들이 내게서 사라진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혹은 사람들은 왜 모두 분노에 차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232쪽, 1만6500원.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기후

기후위기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책에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히 도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무경운 농법을 시도한 70대 농부,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스태프 숫자만큼 나무를 심는 가수, ‘지구의 날’을 맞아 10분간의 어둠 체

노광준 지음/루아크



236쪽, 1만5500원.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쟁에서 이기려면 뛰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일까. 기준값이 정당해지려면 사회는 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동 수단과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는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누구나’에 사회적 약자가 빠져 있다고 책은 짚는다. ‘투표용지, 키오스크, 셀프 주유소, 종이 빨대...’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백순심 지음/설렘(SEOLREM)



188쪽, 1만6000원.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도시화와 기계화로 인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식품, 원자재, 상품 등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동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경제사학자이자 환경과학자인 저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사람들이 채팅형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나 기후위기로 세계가 종말할 것이라 비뚤한 예언에 휘둘린다고 진단한다. 책은 오늘날 인류가 사회 경제 전반을 얼마나 화석연료

바츨라프 스미일 지음/강주현 옮김/김영사



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며 탈탄소화를 위한 단계간의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다. 과학적 통계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밝히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492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푸틴 “시진핑에 가장 지하철 보여줄 것”
▲ 트위터, 감원 사흘 만에 서비스 장애 1만건

/사진 뉴시스



▲ 러시아, 전시 검열법 강화...군 모욕시 징역 15년
▲ 틱톡,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1일 1시간

/사진 뉴시스

▲ 일본, 생활보호 대상자 3년 연속 증가
▲ 美 아시아계 여성임금, 백인보다 높다



[라이프]
익숙함+새로움
MZ 눈높이 맞추는
장수상품
L1

metro®

Life

[바이오]
삼바
화이자와
2410억 규모 계약
L2



포근함에 독특한 감성까지... ‘그때 그 시절’ 어그부츠의 귀환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어그 ‘어그 부츠’

올 겨울 패셔니스타들이 고른 신발은 어그(UGG)의 어그 부츠였다. 따뜻한 양털이 내부에 부착돼 한파에도 아무 걱정 없는 데다 투박하지만 독특한 감성을 주는 황토색 가죽 부츠가 남녀를 불문하고 패셔니스타들의 선택을 받았다.

3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19년 전 인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배우 임수정이 무지개색 니트와 매치했던 신발의 귀여움에 추억을 떠올렸고, 20대 이하 어린 세대는 Y2K 시절 복고풍 어그 부츠의 귀여움에 푹 빠졌다. 특히 최근에는 슬리퍼와 의류, 여름샌들까지 인기를 끌면서 사계절에 어울리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매출 실적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어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했다.

어그 사의 어그 부츠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지는 20년이 넘었다. 양털 부츠를 가리켜 브랜드에 관계 없이 ‘어그 부츠’로 부를 만큼 대명사가 됐다. 어그 부츠는 호주의 서퍼들이 서핑 후 차가워진 발을 빨리 데우기 위해 신었던 게 시초인데, 이를 호주 출신 서퍼 브라이언 스미스가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브랜드화했다.

국내서는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유행을 시작시켰지만, 미국에서는 이보다 빠른 2000년 무렵부터 오프라 윈프리로부터 시작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쇼에서 어그부츠를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라며 “2000년 처음 어그 부츠를 본 후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과 직원들을 위해 350켤레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의 패셔니스타들이 어그부츠를 신고 찍힌 사진들이 쏟아졌고, 2004년에는 한국에도 인기몰이가 시작됐다.

어그 부츠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상표와 디자인 침해로 수십년째 고전 중이다. 120개국 이상에 상표가 등록돼있음에도 2000년대 초반 어그 부츠가 큰 인기를 끌자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낸 양털 부츠들이 쏟아졌다. 외부 디자인이 투박하고 간단한 만큼 뒷꿈치에 붙은 ‘UGG’ 라벨이 포인트였는데 이를 따라하고 심지어 UGG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어그 부츠는 대표적인 방한신발로 꼽히지만, 호주의 서퍼들이 서핑 후 차가워진 발을 데우기 위해 신었던 데서 유래했다. /신세계백화점



2004년 방영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포스터. 배우 임수정이 무지개색 니트에 어그부츠를 매치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



어그(UGG)를 공식 수입하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협업해 UGG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신세계인터

호주 서퍼들이 신던 부츠, 미국서 브랜드화
2004년, 드라마 ‘미사’로 국내서 폭발적 인기
패션+방한 아이템... 디자인 호불호 갈리기도

최근, 슬리퍼·의류까지 1020세대에서 ‘대유행’
매출 전년대비 50%↑, 팝업스토어도 흥행



이를 막고자 회사가 나서자 호주, 미국, 유럽 및 튀르키예 등에서 UGG를 두고 일반 명칭이라는 주장으로 UGG를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거의 모든 국가에서 UGG는 브랜드명으로 인정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뒷꿈치에 부착한 라벨에 UGG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꾸미는 식의 디자인권 침해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도 어그부츠가 유행했는데, 패션 아이템이면서 동시에 방한용 아이템으로 각광 받았다. 겨울이면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디자인에 색과 길이만 조금씩 다른 어그 부츠를 신었다.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도 크게 갈렸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검색 사이트에 ‘어그 부츠’를 검색하면 첫 번째 자동완성에 ‘어그 부츠 극혐(극도로 혐오)’이 뜰 정도다.

다시금 큰 인기를 끈 것은 2022년 겨울인데, 이전 세대가 아닌 20대~10대 세대들이 호응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어그 월드’를 열고 양털 부츠와 양털 슬리퍼, 트레이닝 슈트 등 인기 아이템 7종을 선보이고, 이어 제페토와 협업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팝업 매장 방문객의 90%는 1020세대였는데, 같은 기간 제페토 내 ‘어그 월드’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했다.

매출로도 인기가 나타났다. 매장에 전시된 슈즈 컬렉션 매출은 약 60% 증가했으며 의류 컬렉션 매출은 행사 전주 대비 37% 늘었다. 현실세계 매출뿐만 아니라 제페토 내에서도 어그의 아바타용 아이템은 하루 평균 6000개씩 판매됐다.

지난해 말에는 스타필드 하남점에 국내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다. 154.3㎡(약 47평) 규모로 기존 매장 평수(33㎡)보다 약 5배 넓다. 그간 백화점 유통망을 중심으로 슈즈 위주의 작은 평수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많은 인기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큰 규모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어그 부츠가 돌아오면서 양털이 달린 퍼(Fur) 신발 전반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 ABC마트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을 집계한 결과 신발 판매량은 전년 대비 90% 올랐는데 매출을 견인한 것은 퍼 신발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서울시, 예술영재 교육 지원사업 이어간다
▲ ‘야구천재’ 오타니 WBC 대표팀 합류에 일본 들쭉
/사진 뉴시스

▲ 태권도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2023’ 선정
▲ ‘야구팬 모여라’... WBC 한일전, 영화관서 생중계



▲ FA컵 16강 탈락에 고개 숙인 토트넘
/사진 뉴시스
▲ BTS 제이홉, 솔로 싱글 ‘더 스트리트’ 뮤비 티저 공개